

<<대회 명칭>>

오픈 대회 :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대회

프로골프대회 : 프로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이며 아마추어는 참가할 수 없다.

<<프로암 대회>>

대회방식 : 보통 프로1명과 아마3명이 한팀이 되어 다른 팀들과 팀성적을 가리며 베스트볼 방식을 많이 채용한다. 대회는 보통 본 대회 하루전에 치러지지만 스폰서의 요청에 따라 2일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.

참가방법 : 프로는 스폰서가 지정한 기준으로 초청하며, 아마는 스폰서 초청 아마와 자선기금 형식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일반 아마로 나뉘어진다.

<<출발방식>>

원 웨이 티오프

-1번 홀에서만 티오프

-참가자의 수가 적을경우 (3, 4라운드 / 결선)

동시 티오프

-1번홀과 10번홀에서 동시 출발

-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(1, 2라운드 / 예선)

샷건 티오프

-참가자들이 1번홀부터 18번 홀에 골고루 분산되어 동시출발

-정규대회보다는 프로암 대회나 친선 골프 대회

<<연장전 방식>>

서든데스

-홀별 연장전과 같은 뜻으로 어느 홀에서 승부가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방식

-대부분의 대회에서 채택되고 있다.

규정홀 연장전

-U.S오픈에서는 18홀 플레이 오프, 브리티시 오픈에서는 4홀 플레이 오프제를 채택하고 있다

백 카운트

-최종일 9홀, 6홀, 3홀, 최종홀의 순으로 성적을 집계하여 성적이 좋은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

-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18홀부터 스코어 카드를 대조하는 매칭 카드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.

<<핸디캡 산출방법>>

- 신 페리아 방식 : 히든 홀 방식이라고도 불리며 종전의 6홀을 대상으로 하는 페리아 방식을 수정하여 12홀 히든홀로 선정하여 핸디캡을 산출하는 방식

1. 경기 위원회가 아웃코스과 인 코스에 각각 6홀씩 12홀의 히든 홀을 선정한다.
2. 히든 홀인 12홀 '파'의 합이 48이 되도록 선정한다.
3. 12홀 스코어의 합에 1.5를 곱한 후 코스 전체의 파(일반적으로 72)를 뺀다.
4. 코스 전체의 파(72)를 빼고 나온 점수에 0.8을 곱한것이 핸디캡이 된다.

예) 12홀의 합이 70인 경우 $[(70 \times 1.5) - 72] \times 0.8 = 26.4$ (핸디캡)

<<남자 메이저 4대 대회>>

마스터즈 골프대회

US오픈

- 서든데스 방식이 아니라 18홀 라운드로 다음 월요일에 끝나는 점이 특징이다.

디오픈(the open)

PGA 챔피언십

<<여자 메이저 골프 대회(5개)>>

ANA 인스퍼레이션

- 구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

위민스 PGA 챔피언십

US여자 오픈

- 2008년 대회에 19세의 대한민국의 골프 선수 박인비가 최연소 우승

위민스 브리티시 오픈

-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

에비앙 챔피언십

<<세계의 국가 대항전 골프대회>>

프레지던트 컵 (미국과 인터내셔널팀(유럽제외)간 남자 프로골프 대항전)

- 2015년의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된다.

라이더컵 (유럽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대회)

월드골프챔피언십(WGC)

솔하임컵 (1990년 창설된 미국과 유럽의 여자 프로골프 대항전으로서 2년마다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개최된다.) +라이더컵 따라 만들

<<골프장비>>

캐디백 (클럽 14개)

클럽의 구성

- 남성용 골프채 풀세트 : 드라이버 / 우드 : 1,3,5 / 하이브리드 : 22도 / 아이언 : 4,5,6,7,8,9,PW,AW,SW / 퍼터 : 1

(우드, 메탈, 티타늄 1번 같은말)

- 여성용 골프채 풀세트 : 드라이버 / 우드 : 3,5,7 / 하이브리드 : 23도 / 아이언 : 5,6,7,8,9,PW,AW,SW / 퍼터 : 1

<<클럽의 종류>>(외우기)

우드 1 드라이버, 2 브러쉬, 3 스푼, 4 버피, 5 클릭크, 7 헤븐, 9 디바인

<<샤프트 강도와 그에 적합한 타입>>

기호 - L / 명칭 - 레디스 / 의미 - 부드럽다 / 적합한 타입 - 여성과 시니어, 힘이 약한 남성에게 적합하다

기호 - R / 명칭 - 레귤러 / 의미 - 보통 / 적합한 타입 - 일반 남성, 롱 히터의 여성에게 적합하다

기호 - S / 명칭 - 스티프 / 의미 - 약간 단단하다 / 적합한 타입 - 강한 남성에게 적합하다

기호 - X / 명칭 - 엑스트러스티프 / 의미 - 단단하다 / 적합한 타입 - 롱 히터의 남성, 프로에게 적합하다

<<골프 볼>>

볼의 질량은 46g이하, 볼의 직경은 4.3cm 이상이어야 한다.

<<그립의 종류>>(각 그립의 장점 시험)

오버래핑 그립

- 오른손의 새끼 손가락이 왼손 셋째 손가락 사이에 올라간 상태
- 상당수의 골퍼가 이 그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장점으로 샷의 컨트롤이 용이하며 숏게임에 용이하다.

인터로킹 그립

- 왼손의 둘째 손가락과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끼운 형태의 쥐는 방법
- 손이 작거나 힘이 부족한 여성들이나 견고한 그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취하며 타이거 우즈가 사용하던 그립이다.

베이스볼 그립

- 야구방망이를 쥐듯이 10개의 손가락으로 쥐는 그립
- 초급자의 경우 양팔의 회전을 느껴보거나 양팔의 회전을 연습할때 이 그립을 취하고 레벨스윙 연습을하면 스윙에 도움이 된다.

<<스탠스의 종류>> (3가지 서술시험)

스퀘어 스탠스 - in to in

- 두 발끝을 연결한 라인이 볼이 나가는 선과 평행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자세이다.
- 비기너는 우선 스퀘어 스탠스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. 스윙궤도는 인사이드 인이 되며 볼은 직선으로 나간다.

클로즈 스탠스 - in to out

- 두 발끝을 연결한 라인이 볼이 나가는 선과 크로스되게 자세를 취한것이다. 닫힌자세라고 하며 스윙궤도는
-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므로 볼에 좌회전이 붙어 드로우 볼을 칠 수 있다.

오픈 스탠스 - out to in

- 두 발끝을 연결한 라인이 볼이 나가는 선의 왼쪽을 향한 자세이다. 열린자세라고 하며 스윙궤도가 아웃에서
- 인이 되며 우회전이 붙어 슬라이스 볼을 칠 수 있다.

<<스윙>> (순서적기)

어드레스 -> 테이크백 -> 백 스윙 -> 탑 오브 스윙 -> 다운스윙 -> 임팩트 -> 팔로우 스로 -> 피니시

<<볼의 방향>> (중요, 시험 7가지 샷 중 5가지 이상쓰시오)

볼의 방향은 스윙 궤도와 페이스 방향에 따라 9가지 샷이 나온다.

숙달된 골퍼는 대개 드로계 페이드계, 혹은 스트레이트 볼 등 자신의 공줄기를 가지고 있다.

코스 공략방법도 공줄기에 따라서 결정된다.